

## 大學 東洋畫 教育의 現況과 課題

李 鍾 祥

(서울大 東洋畫科)

### 1. 東洋畫科 教育의 現況

東洋畫에 대한 大學教育은 예술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 동양화에 대한 理論 체계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現代 東洋畫가 안고 있는 過渡期的 狀況과 함께 그 교육 실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일제에 의한 근대사의 跋行 국면 속에서 현대 동양화가 계승하고 창조해 나가야 할 自生的 근대의 유산이 부재하였다는 내부적 상황과 더불어 아직 현대 동양화 교육이 정착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더구나 서구 편중화된 우리나라의 藝術 교육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40년도 안 되는 동양화와 대학교육의 연륜에 비하면 괄목할 발전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미술대학의 東洋畫 교육이 일본식 美感의 잔재를 분식시키고 韓國的 傳統을 창조 계승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여 온 것은 인정받아도 마땅한 듯싶다.

어쨌든 120 여 개가 넘는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극히 적은 수자만이 동양화를 교양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전례적 표현 양식인 동양화는 미술대학에서 아직도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술대학내에 동양화과를 독립된 科로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大, 弘大, 梨大, 誠信女大, 啓明大, 圓光大, 曉星女大 등 전국에서 불과 7개 대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미술대학이나 미술학과가 대학의 순수 학문 영역으로서보다는 예술 영역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국내 유수의 종합대학에서조차 미술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전공별트 科가 세분되어 있는 학교는 손꼽을 정도인 것이다. '46년에 서울大와 梨大에서 미술대학이 창설되고 '48년에 弘益大에서 미술과 창설이 있었지만 이 때는 아직 전공으로만 분류되어 있어서 정식 科로서의 출발은 그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구나 대학에서의 동양화과 교육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기 위주의 도제식 기능 교육이 성행하게 되어 굳이 대학에까지 진학하여 동양화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고명한 대가 밑에서 문도식으로 師承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통념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科의 명칭에 있어서도 아직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大, 梨大, 弘大 등과 같이 東洋畫科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80년대에 들어서 誠信女大, 圓光大, 曉星女大, 啓明大 등과 같이 韓國畫科로

개칭한 대학도 있다.

동양화라는 용어가 한국화로 명명되게 된 배경은 그것이 일제에 의해 붙여진 무성격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서구 주도식의 문화에 대한 일종의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自我 회복을 위한 自覺의 意志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이는 國學 열기가 고조된 '70년대의 時代的 狀況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의 東洋畫 敎育이 지나치게 中國의 文人畫觀 위주로 진행되었거나 中國畫論 혹은 芥子園畫譜 등 중국 일색으로 경도된 데 대한 반성으로서 중국 文人畫의 文弱한 관념 미학 체계를 새로이 교육 과정에서 검증, 반성하고 순도 높은 韓國的 美意識을 체험케 함으로써 민족의 조형 의지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적 있는 藝術敎育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야 된다는 요구가 비등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즉 동양화과의 명칭에서

부터 그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외래 문화의 요소를 청산하고 투철한 自我意識 속에서 새로운 미술 교육과 미술 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는 의지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 2. 東洋畫科 敎育課程의 문제점

현행 동양화과의 커리큘럼을 서울大 동양화과를 참고로 해서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표 1-2>는 별도).

국립대학으로서 민족적 주체성과 뿌리 있는 미술 교육을 우선으로 하여 개방적으로 세계 미술의 사조를 수용한다는 입장에 있는 서울大 동양화과의 경우, 38년의 기간 동안 4~5차례의 교과 과정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현행 동양화과의 커리큘럼은 '85년도에 최종 개편 확정된 것이다.

수묵화와 수묵채색화 등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 것은 수묵화를 고유한 동양 회화의 양식으로

<표 1-1> 서울大 東洋畫科 敎科目 概要 및 개설 과목

교 과 목 명	학-시- 점-간	교 과 목 개 요
水墨彩色畫 I	2-4	전통 양식에 의한 용필, 용묵 등의 훈련과 활용을 통하여 수묵과 채색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 II	2-4	수묵과 채색 화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水墨畫 I	2-4	전통적인 수묵화의 양식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찾아 표현한다.
水墨畫 II	2-4	수묵화의 특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素 描 I(東)	2-4	준법 양식과 기법을 통하여 동양화의 묘법 정신을 이해하고 소묘한다.
素 描 II(東)	2-4	동양화의 묘법 정신과 다양한 대상과 표현 매체를 바탕으로 소묘한다.
材料技法 I(東)	1-2	여러 가지 표현 재료와 용구 및 사용 방법에 따르는 기법 훈련을 통하여 표현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한다.
材料技法 II(東)	1-2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재료의 기법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造 形 I(東)	1-2	동양화의 여러 가지 조형의 원리와 요소를 탐구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造 形 II(東)	1-2	동양화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형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書 藝 I	1-2	기초 운필을 연마하고 전통적인 서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각 서체의 기초를 터득한다.
書 藝 II	1-2	서체의 구체적인 운필 수련과 걸구법을 습득하여 필력을 기르고 서예의 조형성을 탐구한다.
水墨彩色畫 III	2-4	수묵과 채색을 조화시켜 여러 가지 주제를 구상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 IV	2-4	주제에 따른 다양한 양식 및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素 描 III(東)	2-4	대상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과장과 생략 변형의 방법으로 소묘한다.

교 과 목 명	학-시 점-간	교 과 목 개 요
素 描 Ⅳ(東)	2-4	대상과 심상의 다양한 소재 반전과 활용을 통하여 소묘의 표현 영역을 넓힌다.
表現技法 Ⅰ(東)	2-4	동양화의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모색한다.
表現技法 Ⅱ(東)	2-4	현대 회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造形論 Ⅰ(東)	2-0	역대 회화 이론을 통하여 동양 회화의 예술성을 고찰한다.
造形論 Ⅱ(東)	2-0	역대 회화의 이론을 통하여 한국 회화의 예술정신을 고찰한다.
傳統技法 Ⅰ	2-4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창작 정신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표현 능력을 갖춘다.
傳統技法 Ⅱ	2-4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와 기법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표현한다.
東洋美術史 Ⅰ	2-0	동양 미술사 개설, 표현 양식, 표현 기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東洋美術史 Ⅱ	2-0	동양미술사 Ⅰ의 계속 및 반전 단계이다.
水墨彩色畫 Ⅴ	2-4	각자의 사고와 개성에 따라 사실적·사의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墨 Ⅵ	2-4	졸업 제작을 위하여 수묵 채색의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素 描 Ⅴ(東)	2-4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사실적·사의적으로 표현한다.
素 描 Ⅵ(東)	2-4	졸업 제작을 위하여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 묘법 양식을 추구하고 종합적으로 소묘한다.
表現技法 Ⅲ(東)	2-4	심상적 대상을 주제로 하여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실험한다.
表現技法 Ⅳ	2-4	자유로운 소재 선택과 심화된 표현 기법을 통하여 졸업 작품을 제작한다.
現代繪畫論 Ⅰ(東)	2-0	현대 회화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적 상황 등을 유파별로 고찰하여 동양화를 재조명하고 시구 현대 회화와 비교한다.
現代繪畫論 Ⅱ(東)	2-0	동·서 현대 회화의 진행을 비교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여 한국 현대 회화의 정신적·사회적 양상을 고찰한다.
傳統技法 Ⅲ	2-4	전통 기법과 재료를 재조명하고 그 장점과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傳統技法 Ⅳ	2-4	전통적인 표현 양식, 기법, 회화 이념을 취사, 원용하여 조형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한다.

〈표 1-2〉 동양화과에서 미술대학내의 타학과를 위해 제공하는 교과목

교 과 목 명	학-시 점-간	교 과 목 개 요
水墨彩色畫技法 Ⅰ	1-2	수묵과 채색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표현 기법을 익힌다.
水墨彩色畫技法 Ⅱ	1-2	수묵과 채색의 기법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技法 Ⅲ	1-2	수묵 채색화의 다양한 기법과 조형 정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技法 Ⅳ	1-2	수묵 채색화의 기법성과 조형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세계적 추세로서의 드로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굴 장르로서의 비중을 고려, 소묘를 전학년에 걸쳐 개설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毛筆에 의한 自描畫로부터 東西의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한 線描 繪畫를 폭 넓게 이수시킴으로써 기초 학습은 물론 面的 造形思考 못지 않게 線的 造形意識을 터득케 하여 東



의 논문 제출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부 교육 과정에서의 理論教育과 實技教育의 비중이 지나치게 실기 교육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일반적 상황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 석사학위 논문의 질적 향상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앞의 <표 3> 참조).

### 3. 高校教育이 大學 東洋畫 教育에 미치는 영향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藝術 교육 체계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교육 편제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대학 동양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초·중·고교 시절 실제 미술 교육을 통해 東洋畫의 理論 및 實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거의 태반이 서양화나 응용미술 전공의 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데다가 미술 교과서 자체가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구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서구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동양화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고 및 생 등을 통한 明과 暗의 입체적 조형 사고에 단 길들여 짐으로써 東洋畫 재료에 대한 친숙도가 부족하고 東洋的 視覚과 思惟 방식에 대해 無知한 채 동양화과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학년의 교양 과정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부의 1학년 과정에서 東洋畫的 表現 方式이나 造形 思考에 길들여지기는 결코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학 입시의 선발 기준이나 고교 교과서 등이 東洋畫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당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선결 문제라 하겠다.

### 4. 提 言

上記와 같이 단편적으로 현행 大學 東洋畫 教育의 現況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보다 바람직한 동양화 교육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선결이 요청된다 하겠다.

첫째, 東洋畫科의 増設이다. 동양화과의 부족은 곧 東洋畫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의 배출 부족 현상을 낳게 되고, 이는 곧 중·고교 미술 교사 중 동양화 전공 교사의 태부족 현상을 낳게 됨으로써 중·고교의 미술 교육이 서구적 방법론과 분석적 시각 위주의 미술 교육으로 편향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理論 敎育의 보강이다. 예술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학교육에 있어 학문적 연구를 배제할 수는 없다. 理論이 부실하거나 황폐화될 때 결국 장이 교육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民族美術의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한 것이다.

셋째, 中國美術과 韓國美術의 엄격한 分離敎育이다. 東洋畫科의 수업이나 편제가 中國 繪畫史나 그 理論 혹은 中國 繪畫의 技法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서구 미술을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려는 처사와도 같아서 또 하나의 斯大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美術과 우리 미술을 비교 고찰하는 관점에서 이 양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차츰 韓國畫 위주의 편제로 교과 과정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東洋畫科의 교육 과정이 이러한 몇 가지 改善 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대학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관심 있게 연구함으로써 美術大學 내에서의 동양화과 교육이 零細性과 保守性을 벗어나고 충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